

체형 결점 보완을 위한 니트웨어의 디자인 연구:

중년여성을 중심으로

범서희* · 이인성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과정* · 이자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조교수

니트웨어는 과거에 속옷, 이너 웨어 등으로만 인식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더욱 개성화, 다양화, 전문화, 고급화되었으며 카디건, 스웨터, 재킷 등 전반적인 아우터(outer)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편포와 패션 소품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코디네이트가 가능하고, 편안하며 활동성이 좋은 니트가 기능성과 심미성 양쪽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븐(woven)과는 달리 다양한 조직의 디자인과 신축성으로 사이즈의 유연성은 니트웨어 브랜드의 디자인 창의성과 재고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니트웨어의 최대 강점인 신축성을 고려한다면, 젊은층보다는 비교적 체형 변화가 심한 중년 여성들이 외출복으로 니트웨어를 많이 착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행보다는 체형을 의식한 의복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젊은 여성에 비해 중년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노동의 과정 및 연령의 증가에 따라 체형적으로 의복 선택에 있어 제한점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의 체형 결점을 보완하는 니트웨어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니트웨어의 이론적 배경과 중년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특징, 중년 여성이 선호하는 국내·국외 니트웨어 브랜드를 알아보고, 2004-2005년 F/W 니트웨어 트렌드를 분석한 후, 중년 여성의 체형 결점을 보완하는 니트웨어 실물 작품 제작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요인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내 니트웨어 생산업체의 현황을 보면,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되어 국제적인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거의 모든 브랜드사가 연령층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워 차별화 전략에 주력하고 있으며 보다 젊은 감각과 이지 하향화를 통해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니트 불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둘째, 중년 여성의 특징은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노동의 과정 및 연령의 증가로 인해 배 부위나 등, 어깨 등에 피하 지방이 두꺼워지는 형태적 변화와 체중 증가에 따른 비만으로 현대 사회에서 이상형으로 하는 체형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이에 따라 자신의 외모에 대한 심리적 위기감마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착용에 있어서 낮아진 신체적 매력력을 보완하기 위해 의복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되며 유행보다는 체형을 의식한 의복을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 소재 가장 많은 점포수를 가진 백화점을 중심으로 중년층 여성 니트웨어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국내 니트웨어 대표 브랜드는 「모라도」, 「까르뜨니트」, 「에스칼리에」로 조사되었고, 국외 니트웨어 대표 브랜드에서 「센존」, 「미소니」, 「에스까다」로 조사되었다. 넷째, 04-05 F/W 니트웨어 트렌드 분석을 통해 중년 여성의 체형 결점 보완을 위한 작품 제작을 한 결과, 온 타임에서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면과 오프 타임에서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세련미를 니트웨어의 다양한 특징을 이용하여 디자인하기에 적절한 소재로 평가되었으며, 중년 여성의 체형 결점 보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중년 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니트웨어 디자인은 전체적인 체형의 윤곽을 약화시키고 인체보다 의복을 우선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의복 형태가 중년 여성의 체형 결함을 덜 드러나 보이게 하는 시각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